

이승주 연구원

요약

수익성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고금리 확정형 상품 관리 등 내·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한 독일 생명보험산업은 이에 대한 출구전략 중 하나로 런오프 계약이전에 주목하고 있음. 제3자 관여 여부에 따라 내·외부적 관리 방식으로 구분되는 런오프 계약관리를 통해 독일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거나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재무건전성규제 강화를 앞둔 국내 보험산업 또한 고금리 확정형 계약관리를 위한 계약이전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익성 악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고금리 확정형 상품 관리 등 내·외부적인 문제에 직면한 독일 생명보험산업은 런오프(Run-off)¹⁾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및 지급여력비율 개선을 하고 있음²⁾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독일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은 악화됨
 - 또한 2011년 독일 연방재무부의 추가책임준비금제도(Zinszusatzreserve; ZZR) 및 2016년 지급여력제도 Solvency II 도입으로 인해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
 - 추가책임준비금제도는 생명보험회사가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 보장 저축성보험 및 연금 상품에서 비롯된 부채 증가분에 대해 추가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함으로써 보장능력 강화를 도모함
 -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Solvency II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가중됨
 - 위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부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해당 런오프 계약을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나 자회사에 이전시킴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생명보험 런오프 계약이전은 제삼자 관여 여부에 따라 ① 외부적 런오프(External Run-off), ② 내부적 런오프(Internal Run-off) 계약관리 방식으로 구분됨³⁾
 - 생명보험회사가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런오프 계약을 매도하는 것은 외부적 런오프 관리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현재 독일에서 3개의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⁴⁾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1) 런오프(Run-off)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인수를 하지 않고 기존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2)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2020), "Run-offs bei Bestandsverträgen zur Altersvorsorge"

3) Bafin(2018. 2. 15), "Run-Off: Schutz der Kunden in der Lebensversicherung"

4) 독일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Athora Holdings, Frankfurter Leben, Viridium Gruppe임

-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일반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한 감독을 받지만,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⁵⁾
- 이들은 '생명보험'이라는 동질의 속성을 가진 특정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인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음⁶⁾
- 외부적 런오프 계약이전은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받아 이행되며, 감독의 최우선 가치는 '피보험자의 이익'으로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⁷⁾
 - 따라서 BaFin의 허가를 받아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양도된 생명보험 계약 및 보험계약자가 받는 서비스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이전처럼 유지됨
- 내부적 런오프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생명보험회사가 신규계약 체결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거나 해당 계약을 자회사로 분리 및 이전하여 관리함
 - 내부적으로 런오프 계약을 관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측의 변경사항이 없기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하거나 BaFin의 감독을 받을 의무는 없음

○ 독일 생명보험회사 런오프의 대표적인 사례로, ERGO 생명보험은 400만 건의 런오프 계약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Generali는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Viridium에 380만 건의 계약을 매도함

- (내부적 런오프) ERGO는 2018년 약 400만 건에 달하는 ERGO 생명보험의 런오프 계약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런오프 관리 법인과 신계약체결 법인을 분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⁸⁾
 - 본래 ERGO는 ERGO 생명보험과 2010년 이미 내부적 런오프 관리에 들어간 자회사 Victoria 생명보험의 잔존계약을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계약을 매도하려 했으나,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내부 직원의 반대로 인해 내부적 런오프를 선택함(〈표 2〉 참조)
 - 런오프 포트폴리오는 ERGO Lebensversicherung AG(구: Hamburg-Mannheimer Lebensversicherung)에서 관리하고, ERGO Vorsorge에서 신계약체결 및 관리를 담당함
- 아울러 ERGO는 자사 런오프 계약뿐만 아니라 타사의 런오프 계약까지 관리하는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IBM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런오프 계약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⁹⁾
- (외부적 런오프) 2018년 Generali는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Viridium에 독일 Generali 생명보험 지분의 89.9%를 매각함으로써 General Deutschland AG 및 Generali 그룹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43%p, 2.6%p 상승시킴¹⁰⁾¹¹⁾
 - 동 거래는 독일에서 발생한 최대 외부적 런오프 사례로, 책임준비금 규모는 371억 유로, 계약 건수는 약 380만 건에 달함

5) Aktuar Aktuell(2018. 12), "Run-off in der deutschen Lebensversicherung"

6) Bafin(2018. 2. 15), "Run-off: Schutz der Kunden in der Lebensversicherung"

7) Bafin(2014. 3. 4), "Run-off: Aufsicht über Versicherungsunternehmen, die Bestände abwickeln"

8) Versicherungsbote(2021. 6. 18), "Solvvenzquoten: Freud und Leid der Run-off-Versicherer"

9) Versicherungsbote(2018. 2. 22), "Ergo baut Run-off-Plattform für Lebensversicherer"

10) Generali Lebensversicherung AG(2018), "Bericht über Solvabilität und Finanzlage zum 31. Dezember 2018"

11) Versicherungsmagazin(2018. 7. 5), "Generali stößt Leben-Geschäft ab"

- 재무건전성규제 강화를 앞둔 국내 보험산업에서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계약이전제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1〉 독일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의 생명보험 계약인수 현황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피인수회사	이전 연도	계약 건수
Athora Holdings	Delta Lloyd Lebensversicherung AG (현: Athora Lebensversicherung AG)	2010	244,251
Frankfurter Leben	Basler Leben AG (현: Frankfurter Lebensversicherung AG)	2015	85,746
	ARAG Lebensversicherung AG (현: Frankfurt Münchner Lebensversicherung AG)	2017	267,833
Viridium Gruppe	Generali Lebensversicherung AG (현: Proxalto Lebensversicherung AG)	2018	3,845,565
	Heidelberger Lebensversicherung AG	2014	363,536
	Skandia Lebensversicherung AG	2014	243,094
	Entis Lebensversicherung AG	2003	85,746

자료: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2020), Run-offs bei Bestandsverträgen zur Altersvorsorge

〈표 2〉 독일 생명보험회사의 내부적 런오프 관리 현황

생명보험회사	런오프 대상 보험회사	발생 연도	계약 건수
Die Bayerische Lebensversicherung AG	Bayerische Beamten Lebensversicherung AG	2010	170,115
ERGO Lebensversicherung AG	Victoria Lebensversicherung AG	2010	906,908
	ERGO Lebensversicherung AG	2018	4,123,728
Stuttgarter Lebensversicherung AG	PLUS Lebensversicherung AG	2010	53,367
Nürnberger Lebensversicherung AG	Nürnberger Beamten Lebensversicherung	2019	N/A

자료: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2020), "Run-offs bei Bestandsverträgen zur Altersvorsorge"; Versicherungsbote (2019), "Nürnberger schickt Leben-Tochter in Run-off"